

제14차 NEAR 고위급 실무위원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스크랩

2024.9.27.(금)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신문	중앙일보	中선양서 '동북아 지방정부연합' 고위급회의	
2	뉴스	연합뉴스	中선양서 '동북아 지방정부연합' 고위급회의...싱하이밍 등 참석	
3	인터넷	아시아투데이	'동북아 지방정부연합' 고위급 회의 개막	
4	인터넷	경향신문	中선양서 '동북아 지방정부연합' 고위급회의	
5	인터넷	뉴시스	中서 동북아지자체연합 고위급실무위...싱하이밍도 참석	
6	인터넷	이데일리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고위급 실무위...포항시 특별회원 가입	
7	인터넷	다경뉴스	경상북도, 제14차 NEAR 고위급실무위원회 중국 랴오닝성에서 개최	
8	인터넷	한국사회적 경제신문	경상북도, 제14차 NEAR 고위급실무위원회 중국 랴오닝성에서 개최	
9	통신사	서울뉴스통신	동북아지방자치단체연합 고위급실무위원회 랴오닝성에서 개최	
10	신문	경북매일	포항시, NEAR 가입 기초지자체로 첫 이름 올렸다	
11	인터넷	세계일보	포항시,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특별회원 가입... 글로벌 위상 강화	
12	인터넷	대경일보	포항시,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특별회원 가입 글로벌 위상 강화	

中주최 국제회의에 회원국 北 불참...또다른 '북·중 갈등' 노출?

중앙일보 입력 2024-09-25 15:23:47



25일 중국 선양시 상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4차 고위급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싱하이밍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 본부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NEAR 제공

중국이 주최한 국제회의에 회원국인 북한이 불참하면서 최근 계속되는 북·중 갈등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숙적"으로 부르는 등 감정이 격화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월 중국 국방부 주최 회의에도 외교사절을 보내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중앙일보 9월 20일자 10면>

관계자들에 따르면 25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열린 동북아 6개국 연합조직인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정례회의에 북한이 불참했다. 과거 중국에서 열린 회의에

북한 외교관이 참석했던 전례와 다른 행보다.

다만, 이번 회의는 중국 측이 북한을 공식 초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NEAR 관계자는 “북한이 선양에 총영사관이 있는데도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북한을 의식한 중국이 초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2004년 중국 헤이룽장성 총회와 2016년 러시아 이르쿠츠크 회의에 참여 주체인 함경북도 또는 나선시, 아니면 현지 총영사관 대표가 참석했다. 북한 측 대표는 이런 회의에서 나선경제무역지대의 국제 개발을 위한 중·러와 교류 협력을 강조하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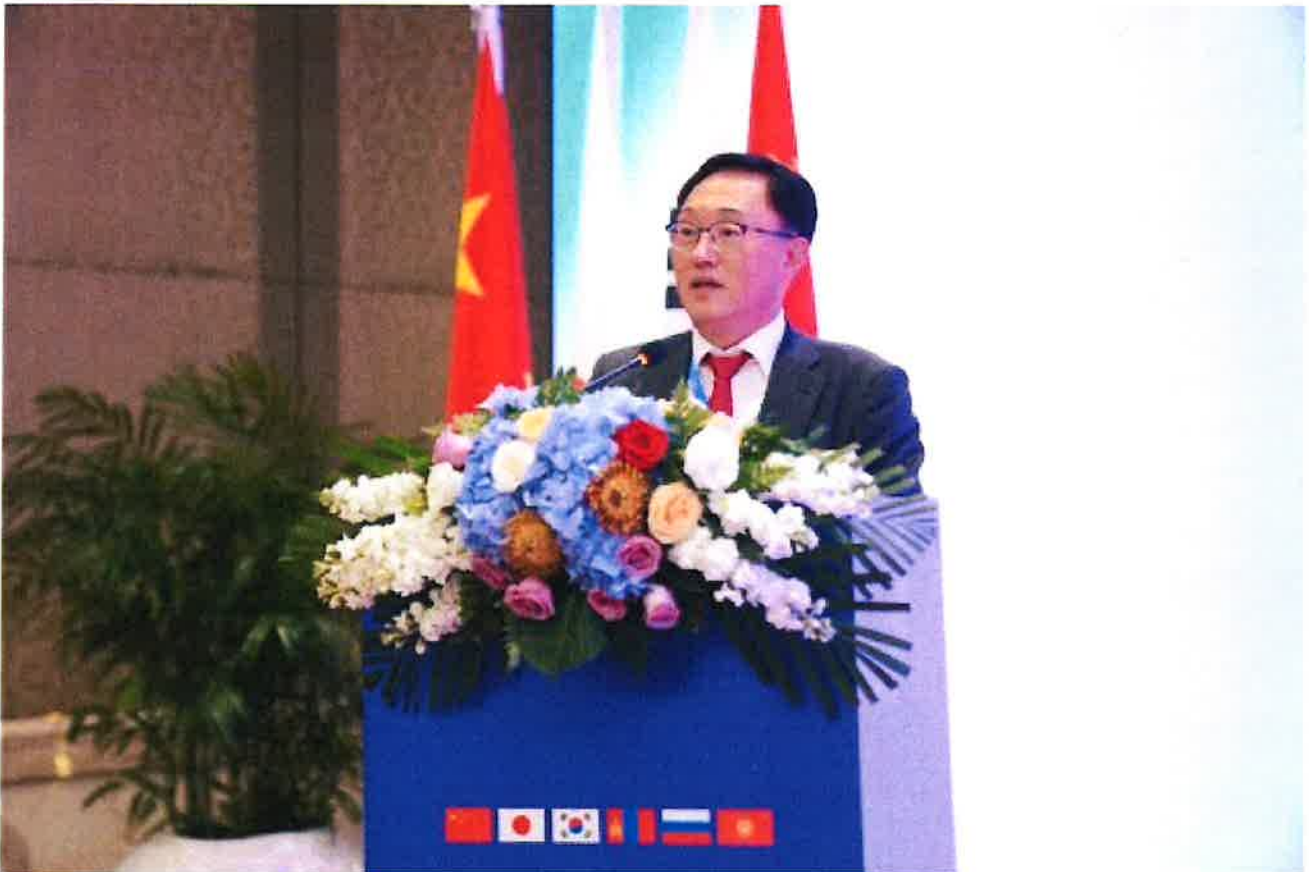
이날 열린 ‘제14차 NEAR 고위급실무위원회’에는 왕리보(王利波) 랴오닝성 부성장과 임병진 NEAR 사무총장 등 6개국 40개 광역지방정부 대표 9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7월 귀임한 싱하이밍(邢海明) 전 주한 중국대사도 외교부 아시아국 본부대사 직함으로 참석했다.

2개월 만에 공개석상에 처음 등장한 싱 대사는 “동북아 지역은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하며 상호 협력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중국 외교부는 내년 랴오닝성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NEAR의 각종 활동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24일 중국 선양시에서 리러청(왼쪽 세번째) 랴오닝성 성장이 임병진(왼쪽 두번째)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 있다. 오른쪽에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대사가 중국 외교부 본부대사로 배석했다. NEAR 제공

전날 중국 차세대 정치가로 꼽히는 리러청(李樂成·59) 랴오닝 성장은 대표단을 접견하며 “NEAR 각 회원 지방정부들이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해 동북아 번영과 발전을 위해 공헌하자”고 제안했다.



25일 중국 선양시 상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4차 고위급실무위원회’에서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NEAR 제공

선양 총영사를 역임한 임병진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NEAR 회원수는 6개국(한·북·중·일·몽·러) 82개 광역 회원정부, 준회원 2개국(베트남, 키르기스스탄)의 2개 지방정부, 한국 포항시의 특별회원, 옵서버 5개로 총 8개국 90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의 다자교류 플랫폼으로 외연을 넓혔다”며 “NEAR를 보다 내실화해, 양자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96년 경주에서 한·중·일·러 4개국 29개 회원정부가 창설한 광역지방정부 연합조직인 NEAR는 이후 몽골 및 북한을 포함한 6개국 90개 지방정부로 확대했다. 경북 포항에 상설

사무기구를 두고 있다.

관련기사

- ▶ 성장 빨간불 中...지준율 0.5%p 인하 '빅컷' 부동산·주가 살리기 총력전
- ▶ 홍콩 매체 "북중 관계, 자르려해도 못끊고, 다듬어도 더 험클어져"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中선양서 '동북아 지방정부연합' 고위급회의...싱하이밍 등 참석

송고시간 | 2024-09-25 15:25

| 한중일러 등 지자체 81곳 참여...싱하이밍 "동북아 지역 상호협력 필요"



25일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고위급회의에서 발언하는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대사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동북아시아 6개국 81개 광역 지방정부 연합조직인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사무총장 임병진 전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이 25일 중국 동북 랴오닝성 선양에서 제14차 고위급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장리린 랴오닝성 부성장과 치메드 출롱 몽골 옴스아이막(아이막은 도<道>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지사, 카나트 주마가지예브 키르기스스탄 추이주(州) 지사, 코체토

바 예카테리나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 부총리,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등 38개 지방정부의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했다.

의장을 맡은 장리린 랴오닝성 부성장은 환영사에서 "NEAR가 더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회원 단체 간 경제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동북아 지역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고 인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국장급으로 회의에 처음 참석한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대사는 동북아 지역은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상호 협력이 필요하며, 중국 랴오닝성이 의장 단체인 만큼 중국 외교부도 내년에 열릴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지·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NEAR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1996년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개국 29개 지방정부가 창설한 NEAR는 현재 북한과 몽골을 포함한 6개국 81개 광역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단체로 커졌다.

임병진 사무총장은 "세계 정세가 신냉전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지방정부 대표들이 모여 상호 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며 "향후 중앙아·동남아 지방정부를 준회원으로 가입시키는 'NEAR+2' 정책으로 동아시아 지방정부 협력을 선도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했다.

xi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25 15:25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동북아 지방정부연합’ 고위급 회의 개막

기사승인 [2024-09-25 17:22]

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싱하이밍 전 주한 대사 등 참석
한중일러 등 지자체 81곳 참여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동북아시아 6개국 81개 광역 지방 정부 연합조직인 '동북아 지역자치단체연합(NEAR·사무총장 임병진 전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이 25일 중국 동북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에서 제14차 고위급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25일 개막한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고위급 회의에서 발언하는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 대사./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NEAR 관계자의 25일 전언에 따르면 3일 동안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장리린(張立林) 랴오닝성 부 성장과 치메드 촐롱 몽골 옅스아이막(아이막은 도도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지사, 카나트 주마가 지예브 키르기스스탄 추이주(州) 지사, 코체토바 예카테리나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 부총리, 장 상길 포항시 부시장 등 38개 지방정부의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했다.

의장을 맡은 장리린 라오닝성 부성장은 환영사에서 "NEAR가 더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회원 단체 간 경제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동북아 지역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고 인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국장급 간부의 자격으로 회의에 처음 참석한 싱하이밍(邢海明) 전 주한 중국 대사는 "동북아 지역은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후 "라오닝 성이 의장 단체인 만큼 중국 외교부도 내년에 열릴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지·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96년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지방 정부가 창설한 NEAR는 현재 북한과 몽골을 포함한 6개국 81개 광역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단체로 커졌다.

임병진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세계 정세가 신냉전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중일러 등 지방 정부 대표들이 모여 상호 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면서 "향후 중앙아와 동남아 지방 정부를 준회원으로 가입시키는 'NEAR+2' 정책으로 동아시아 지방정부 협력을 선도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상길 포항 부시장은 "포항시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NEAR 사무국의 예산 지원 등 공로를 인정받아 첫 특별회원으로 가입했다"고 감사를 표한 후 "향후 NEAR 플랫폼에서 회원 정부 간 긴밀히 협력해 동북아 공동번영과 평화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NEAR 고위급 실무위원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 앞서 국장급 대표가 참석해 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중국 중앙 정부 국장급인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 대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기자 mhhong1@asiatoday.co.kr

©"짧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중국에서 열린 동북아 지방정부 교류 행사에 북한 불참 ...미묘한 북·중관계 반영하나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2024.09.25 17:23



남북한과 중국·일본·몽골·러시아 6개국 지방정부 연합 조직인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4차 고위급 회의가 25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 상그릴라 호텔에서 열렸다.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공.

남북한과 중국·일본·몽골·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지방정부 연합 조직인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고위급 모임에 북한이 불참했다. 미묘한 북·중기류를 반영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NEAR에 따르면 25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NAEA 제14차 고위급 실무위원회가 열렸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으로 중국 랴오닝 부성장, 몽골 읍스아이막 지사, 러시아 부라티야공화국 총리 등 38개 지방정부 관계자 90명이 참석했다. 한국은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이 참석했다.

리러청 랴오닝성장은 환영사에서 "NEAR 각 회원 지방정부들이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해 동북아 번영과 발전을 위해 공헌하자"고 말했다.

NEAR는 1996년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개국 29개 지방정부가 경주에서 창설했다. 북한과 몽골이 가입하면서 공식 회원국은 6개국으로 늘어났다. 베트남과 키르기스스탄도 읍서버 국가로 합류해 현재 총 8개국 9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나선특별시와 함경북도가 가입돼 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는 불참했다. 북한은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에서 2012년 열린 총회와 2016년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에서 열린 총회, 2019년 중국 지린성에서 열린 원탁회의 등 중국과 러시아에서 개최된 NEAR 행사에 참여한 바 있다.

중국 측이 북한을 초청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 7월 중국 국방부 주최 회의에도 외교사절을 보내지 않았으며 북한 정부수립 기념일 '9·9절' 행사에는 왕야쥘 중국대사가 아닌 평춘타이 공사가 대리대사가 참석했다.

지난 7월 귀임한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대사도 이날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 본부대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싱 대사는 “동북아 지역은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하며 상호 협력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중국 외교부는 내년 라오닝성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NEAR의 각종 활동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세계 정세가 냉전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지방정부 대표들이 모여 상호 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The Kyunghyang Shinmun, All rights reserved.

中서 동북아지역자체연합 고위급실무위...싱하이밍도 참석

등록 2024.09.25 13:02:11



[베이징=뉴스시스] 동북아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24~25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 샹그릴라호텔에서 제14차 고위급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제공) 2024.9.25 photo@newsis.com

[베이징=뉴스시스]박정규 특파원 = 동북아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24~25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 샹그릴라호텔에서 제14차 고위급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임병진 NEAR 사무총장과 왕리보 랴오닝성 부성장을 비롯해 키르기스스탄, 몽골, 부랴티야공화국 등 6개국 39개 광역지방정부 국장급 대표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고위급실무위원회에서는 NEAR 특별회원 신설안과 신규회원 인준안(중국 칭하이성), 준회원 인준안(키르기스스탄 추이주), 특별회원 가입안(한국 포항시) 등을 의결했다.

NEAR 고위급실무위원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 앞서 국장급 대표가 참석해 총회 준비와 NEAR 발전 방안, 회원지방정부 간 협력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로 의장정부가 주관하고 NEAR 사무국이 지원한다.

회의에 앞서 지난 24일 열린 간담회에는 전 주한 중국대사인 싱하이밍 외교부 아시아국 대사도 참석했다. 싱대사는 "동북아 지역은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상호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중국 외교부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세계 및 동북아 정세가 냉전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지방정부 대표 40여명이 함께 모여 상호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뉴스시스] 동북아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24~25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 샹그릴라호텔에서 제14차 고위급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대사.(사진=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제공) 2024.9.25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로벌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고위급 실무위...포항시 특별회원 가입

구독 이명철 기자 | 2024.09.25 09:34:38

중국 랴오닝서 개최, 회원정부간 협력 강화 방안 등 논의
임병진 사무총장 “다자교류 플랫폼, 교류·협력 기회 창출”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동북아지역 광역 지방정부들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칭하이성은 이번에 광역 지방정부 연합에 새로 가입했으며 우리나라 포항시는 첫 특별회원으로 들어갔다.



지난 24일부터 중국 랴오닝성에서 열린 제14차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RA) 고위급 실무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S.E.S 슈, 눈물 범벅된 상태로 "집 나갈 것" 샤우팅... 무슨 일?

[Read Next Story >](#)

- ▣ 천만원 있다면.. 9시 "이 종목" 꼭 매수해...
- ▣ "月220만원" 받던 직장인, 5개월만에 "12..."
- ▣ 허리협착증, 집에서 "이것" 5분만 해라! ...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지난 24일부터 양일간 중국 랴오닝성 선양 상그릴라호텔에서 제14차 NEAR 고위급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NEAR는 동북아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이다. 이번 회의는 왕리보 랴오닝성 부성장, 임병진 NEAR 사무총장, 키르기스스탄 추이주 지사, 몽골 옅스아이막 지사, 부랴티야공화국 부총리 등 6개국 39개 광역지방정부 국장급 대표 등 역대 최대 규모인 90여명이 참석했다.



- ▣ 슬기로운 재테크 생활! 네이버 채널...
- ▣ 새로운 연재 발견! 바로 확인해보세요...
- ▣ [특허] 통증의 원인 "세포 손상" 피...
- ▣ 통장에 500만... S.E.S 슈, 눈물 범벅된 상태로 "집 나갈 것" 샤우팅... 무슨 일?

NEAR 의장인 리러청 성장은 전일 이명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 대사, 해 간담회와 환영 만찬을 열었다.

[Read Next Story >](#)

이튿날 열린 고위급실무위원회에서는 NEAR 특별회원 신설안과 중국 칭하이성 신규회원 인준, 키르기스스탄 추이주 준회원 인준과 함께 포항시 특별회원 가입안을 의결했다.

기자 Pick

무력 과시한 중국, 전날 쏘아 올린 ICBM 발사 장면 공개

유동성 공급 신호탄, 中 정책금리 MLF 30bp 인하

동북아 광역지방정부간 실질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NEAR 산하 19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회원정부 부단체장 이상이 참가하는 'NEAR 지사성장 회의(가칭)' 개최안도 협의했다.

NEAR 의장정부인 라오닝성의 왕리보 부성장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NEAR는 동북아의 수많은 이웃을 연결하는 매우 실용적인 교류 플랫폼으로 경제무역, 문화관광,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NEAR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회원단체간 경제협력 적극 추진, 동북아 지역 원활한 이동 보장, 인문 협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S.E.S 슈, 눈물 범벅된 상태로 "집 나갈 것" 샤우팅... 무슨 일?

임병진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광역 회원정부, 준회원 2개국 2개

[Read Next Story >](#)

8개국 90개 광역 지방정부가 동북아 지방정부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으로 외연이 확대됐다"며 "다자교류 플랫폼으로서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양자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지속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상길 포항 부시장은 "포항시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NEAR 사무국의 예산 지원 등 공로를 인정받아 첫 특별회원으로 가입했다"며 감사를 표하고 "향후 NEAR 플랫폼에서 회원정부 간 긴밀히 협력해 동북아 공동번영과 평화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REA는 동북아자치단체간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1996년 경주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한·중·일·러 4개국 29개 회원정부가 참가해 창립됐다.

NEAR 고위급실무위원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 앞서 국장급 대표가 참석해 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이 회의에 중국 중앙정부 국장급인 전 주한 중국대사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속에 그것은 사진에서 발견되었

- 이번주 25억 로또1등 예상번호 '3,11..' 꼭 마킹하자
- 최강동안 80대 할머니, 관리 안한 쌍얼보니.. 충격!
- "척추관협착증" 허리통증·다리저S.E.S 슈, 눈물 범벅된 상태로 "집 나갈 것" 샤우팅... 무슨 일?
- "임플란트" 30만원대로 "통증없"
- 단 돈 200만 원으로 50억 번 비결

[Read Next Story >](#)

경상북도, 제14차 NEAR 고위급실무위원회 중국 랴오닝성에서 개최

- 역대 고위급 실무위 최대 규모 6개국 39개 회원단체 90여 명 참석, 중국 외교부에서도 큰 관심 표명 - 중국 청하이성(82번째) 신규 회원, 중앙아 키르기스스탄 추이주 준회원(2번째), 한국 포항시 특별회원(1번째) 가입 승인

기사입력시간 : 2024/09/25 [20:42:00]

백두산 기자

[다경뉴스=백두산 기자] 동북아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총장 임병진)이 9월 24일, 25일 양일간 랴오닝성 선양 상그릴라호텔에서 「제14차 NEAR 고위급실무위원회」를 열고, 포항시를 특별회원으로 인준하는 등 협력강화를 다짐했다.



▲ 경상북도, 제14차 NEAR 고위급실무위원회 중국 랴오닝성에서 개최

이번 회의에는 왕리보 랴오닝성 부성장, 임병진 NEAR 사무총장, 키르기스스탄 추이주 지사, 몽골 옴스아이막 지사, 부랴티야공화국 부총리 등 6개국 39개 광역지방정부 국장급대표 등 90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NEAR 의장인 리러청 랴오닝성 성장은 이날 임병진 사무총장과 회의참가 회원정부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이어 환영만찬을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前 주한 중국대사인 심하이밍 외교부 아시아국 대사, 평서우취안 랴오닝성정부 비서장, 랴오닝성 13명 청장급간부들을 비롯해, NEAR 회원인 중국 지방정부 대표들이 참석했다.

9월 25일 열린 고위급실무위원회에서는 NEAR 특별회원 신설안, 신규회원 인준(중국 칭하이성), 준회원 인준(중앙아 키르기스스탄 추이주), 특별회원 가입(한국 포항시)안을 의결했다.

또 동북아 광역지방정부간 실질적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NEAR 산하 19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회원정부 부단체장 이상이 참가하는 「NEAR 지사·성장 회의(가칭)」 개최안도 협의했다.

고위급실무위원회의 개막식은 NEAR 의장정부인 왕리보 랴오닝성 부성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 싱하이밍 외교부 아시아국 대사, 치메드 출롱 몽골 옴스아이막 지사, 카나트 주마가지예프 키르기스스탄 추이주 지사, 코체토바 예카테리나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 부총리, 장상길 한국 포항시 부시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왕리보 랴오닝성 부성장은 환영사에서 “세상에 다양한 국제기구가 있지만 NEAR는 동북아의 수많은 이웃을 연결해주는 매우 실용적인 교류 플랫폼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지난 28년 동안 NEAR는 개방과 포용, 상호이익, 상호존중, 평등대우를 원칙으로 경제무역, 문화관광,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협력을 추진해 왔다”고 했으며, “① NEAR가 더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② NEAR 회원단체간 경제협력 적극 추진, ③ 동북아지역의 원활한 이동 보장, ④인문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금번 회의를 통해 NEAR의 회원수는 6개국(중·일·한·북한·몽·러) 82개 광역 회원정부, 준회원 2개국(베트남, 키르기스스탄) 2개 지방정부, 한국 포항시의 특별회원, 옵서버 5개로 총 8개국 90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해 있는 동북아 지방정부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으로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무엇보다 회원정부로부터 신뢰감과 인정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교류 플랫폼으로서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양자교류와 협력의 기회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NEAR 고위급실무위원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 앞서 국장급 대표가 참석, 총회 준비와 NEAR 발전 방안, 회원지방정부 간 협력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로 의장정부가 주관하고 NEAR 사무국이 지원한다.

임병진 사무총장은 “세계 및 동북아 정세가 냉랭전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등의 지방정부 대표 40여명이 함께 모여 상호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동북아지방정부 간 협력은 물론 향후 중앙아시아, 동남아 지방정부를 준회원으로 가입시키는 NEAR+2 정책을 통해 한국이 동아시아의 지방정부간 협력을 선도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2년 제13차 NEAR 고위급 실무위원회는 온라인으로 개최됐지만 지난해 역대 규모로(150여 명 참가) 치러진 울산에서의 제14차 NEAR 총회와 올해 랴오닝성에서의 제14차 고위급 실무위원회의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확실성을 NEAR 회원단체가 함께 극복하고 번영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경상북도는 NEAR사무국 소재 단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번 회의가 회원단체들의 교류 협력과 상생 네트워크를 위한 장이 되길 바라며 오늘 나온 다양한 주제들을 공유하고 회원단체들이 힘을 모은다면 현재 직면한 여러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EAR 고위급실무위원회에 중국 중앙정부 국장급인 前 주한 중국대사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임 사무총장의 일본 시마네현, 돗토리현, 오키나와 지사 면담,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참석할 때 4명의 러시아 연방

주지사, 총리와 면담한 것도 NEAR의 중요성이 인정받고 있다는 징표로 해석된다.

동북아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경 주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한·중·일·러 4개국 29개 회원정부가 참가해 창립된 후, 몽골 및 북한을 포함한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로 확대됐으며, 현재 라오닝성장이 작년 10월부터 제15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 경상북도, 제14차 NEAR 고위급실무위원회 중국 라오닝성에서 개최

경북도, 제14차 동북아지방자치단체연합(NEAR) 고위급실무위원회 중국 랴오닝성에서 개최

역대 고위급 실무위 최대 규모 6개국 39개 회원단체 90여 명 참석, 중국 외교부에서도 큰 관심 표명

황인규 기자 hig7377@gmail.com

등록 2024.09.25 16:50:07



▲ 경북도, 제14차 동북아지방자치단체연합(NEAR) 고위급실무위원회 중국 랴오닝성에서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동북아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지역자치단체 연합이 9.24, 25일 양일간 랴오닝성 선양 샹그릴라호텔에서 '제14차 NEAR 고위급실무위원회'를 열고, 포항시를 특별회원으로 인준하는 등 협력강화를 다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왕리보 랴오닝성 부성장, 임병진 NEAR 사무총장, 키르기스스탄 추이주 지사, 몽골 읍스아이막 지사, 부랴티야공화국 부총리 등 6개국 39개 광역지방정부 국장급대표 등 90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NEAR 의장인 리러청 랴오닝성 성장은 이날 임병진 사무총장과 회의참가 회원정부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이어 환영만찬을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前 주한 중국대사인 싱하이밍 외교부 아시아국 대사, 평서우취안 랴오닝성정부 비서장, 랴오닝성 13명 청장급간부들을 비롯해, NEAR 회원인 중국 지방정부 대표들이 참석했다.

9.25 열린 고위급실무위원회에서는 NEAR 특별회원 신설안, 신규회원 인준(중국 칭하이성), 준회원 인준(중앙 아 키르기스스탄 추이주), 특별회원 가입(한국 포항시)안을 의결했다.

또 동북아 광역지방정부간 실질적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NEAR 산하 19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회원정부 부단체장 이상이 참가하는 'NEAR 지사·성장 회의(가칭)'개최안도 협의했다.

고위급실무위원회의 개막식은 NEAR 의장정부인 왕리보 랴오닝성 부성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 싱하이밍 외교부 아시아국 대사, 치메드 총통 몽골 옅스아이막 지사, 카나트 주마가지예 프 키르기스스탄 추이주 지사, 코체토바 예카테리나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 부총리, 장상길 한국 포항시 부시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왕리보 랴오닝성 부성장은 환영사에서 "세상에 다양한 국제기구가 있지만 NEAR는 동북아의 수많은 이웃을 연결해주는 매우 실용적인 교류 플랫폼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지난 28년 동안 NEAR는 개방과 포용, 상호이익, 상호존중, 평등대우를 원칙으로 경제무역, 문화관광,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협력을 추진해 왔다"고 했으며, "① NEAR가 더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② NEAR 회원단체간 경제협력 적극 추진, ③ 동북아지역의 원활한 이동 보장, ④인문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금번 회의를 통해 NEAR의 회원수는 6개국(중·일·한·북한·몽·러) 82개 광역 회원정부, 준회원 2개국(베트남, 키르기스스탄) 2개 지방정부, 한국 포항시의 특별회원, 옵서버 5개로 총 8개국 90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해 있는 동북아 지방정부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으로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무엇보다 회원정부로부터 신뢰감과 인정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교류 플랫폼으로서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양자교류와 협력의 기회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NEAR 고위급실무위원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 앞서 국장급 대표가 참석, 총회 준비와 NEAR 발전 방안, 회원지방정부 간 협력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로 의장정부가 주관하고 NEAR 사무국이 지원한다.

임병진 사무총장은 "세계 및 동북아 정세가 신냉전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등의 지방정부 대표 40여명이 함께 모여 상호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동북아지방정부간 협력은 물론 향후 중앙아시아, 동남아 지방정부를 준회원으로 가입시키는 NEAR+2 정책을 통해 한국이 동아시아의 지방정부간 협력을 선도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2년 제13차 NEAR 고위급 실무위원회는 온라인으로 개최됐지만 지난해 역대 규모로(150여 명 참가) 치러진 울산에서의 제14차 NEAR 총회와 올해 랴오닝성에서의 제14차 고위급 실무위원회의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확실성을 NEAR 회원단체가 함께 극복하고 번영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경상북도는 NEAR사무국 소재 단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번 회의가 회원단체들의 교류 협력과 상생 네트워크를 위한 장이 되길 바라며 오늘 나온 다양한 주제들을 공유하고 회원단체들이 힘을 모은다면 현재 직면한 여러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EAR 고위급실무위원회에 중국 중앙정부 국장급인 前 주한 중국대사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임 사무총장의 일본 시마네현, 돗토리현, 오키나와 지사 면담,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참석할 때 4명의 러시아 연방 주지사, 총리와 면담한 것도 NEAR의 중요성이 인정받고 있다는 징표로 해석된다.

동북아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경 주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한·중·일·러 4개국 29개 회원정부가 참가해 창립된 후, 몽골 및 북한을 포함한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로 확대됐으며, 현재 라오닝성장이 작년 10월부터 제15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 2014 한국사회적경제신문. 모든 권리 보유. 본 기사의 내용은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명시적 허가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동북아지방자치단체연합 고위급실무위원회 랴오닝성에서 개최

✎ 박영기 Ⓞ 승인 2024.09.25 16:14

고위급 실무위 최대 규모 6개국 39개 회원단체 90여 명 참석



동북아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 24일, 25일 양일간 랴오닝성 선양 상그릴라호텔에서 '제14차 NEAR 고위급실무위원회'를 열고, 포항시를 특별회원으로 인준하는 등 협력강화를 다짐했다.

【경북 = 서울뉴스통신】 박영기 기자 = 동북아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 24일, 25일 양일간 랴오닝성 선양 상그릴라호텔에서 '제14차 NEAR 고위급실무위원회'를 열고, 포항시를 특별회원으로 인준하는 등 협력강화를 다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왕리보 랴오닝성 부성장, 임병진 NEAR 사무총장, 키르기스스탄 추이주 지사, 몽골 옅스아이막 지사, 부랴티야공화국 부총리 등 6개국 39개 광역지방정부 국장급대표 등 90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NEAR 의장인 리러청 랴오닝성 성장은 이날 임병진 사무총장과 회의참가 회원정부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이어 환영만찬을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전 주한 중국대사인 싱하이밍 외교부 아시아국 대사, 평서우취안 랴오닝성정부 비서장, 랴오닝성 13명 청장급간부들을 비롯해, NEAR 회원인 중국 지방정부 대표들이 참석했다.

25일 열린 고위급실무위원회에서는 NEAR 특별회원 신설안, 신규회원 인준(중국 칭하이성), 준회원 인준(중앙아 키르기스스탄 추이주), 특별회원 가입(한국 포항시)안을 의결하였다.

동북아 광역지방정부간 실질적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NEAR 산하 19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회원정부 부단체장 이상이 참가하는 'NEAR 지사·성장 회의(가칭)' 개최안도 협의하였다.

고위급실무위원회의 개막식은 NEAR 의장정부인 왕리보 랴오닝성 부성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 싱하이밍 외교부 아시아국 대사, 치메드 출롱 몽골 옴스아이막 지사, 카나트 주마가지예프 키르기스스탄 추이주 지사, 코체토바 예카테리나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 부총리, 장상길 한국 포항시 부시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왕리보 랴오닝성 부성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28년 동안 NEAR는 개방과 포용, 상호이익, 상호존중, 평등대우를 원칙으로 경제무역, 문화관광,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협력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금번 회의를 통해 NEAR의 회원수는 6개국(중·일·한·북한·몽·러) 82개 광역 회원정부, 준회원 2개국(베트남, 키르기스스탄) 2개 지방정부, 한국 포항시의 특별회원, 옵서버 5개로 총 8개국 90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해 있는 동북아 지방정부간 최대 다자교류 플랫폼으로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무엇보다 회원정부로부터 신뢰감과 인정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교류 플랫폼으로서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양자교류와 협력의 기회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병진 사무총장은 “세계 및 동북아 정세가 신냉전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등의 지방정부 대표 40여명이 함께 모여 상호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동북아 지방정부 간 협력은 물론 향후 중앙아시아, 동남아 지방정부를 준회원으로 가입시키는 NEAR+2 정책을 통해 한국이 동아시아의 지방정부간 협력을 선도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박영기 pakryk2002@naver.com

포항시, NEAR 가입 기초지자체로 첫 이름 올렸다

✎ 이석윤기자 Ⓞ 승인 2024.09.25 19:59 □ 8면

고위급 실무위서 특별회원 가입
동북아 광역지방정부 간 교류로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중심
마이스산업 등 시너지효과 기대



25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된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14차 NEAR 고위급 실무위원회'에서 포항시가 NEAR 특별회원으로 가입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동북아 6개국 광역 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4차 NEAR 고위급 실무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특별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번 회의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중국 랴오닝성에서 개최됐으며,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을 비롯해 왕리보 랴오닝성 부성장, 임병진 NEAR 사무총장, 키르기스스탄 추이주 지사, 몽골 옴스아이막 지사 등 6개국 39개 광역지방정부 국장급 대표 등 90여 명이 참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로써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NEAR에 가입한 첫 회원이 됐으며, NEAR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특별회원 가입으로 동북아 지방정부와의 교류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를 중심으로 글로벌 MICE 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관련 산업 육성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NEAR 상설 사무국 유치(2005년) 이후 교류를 이어왔고 NEAR 사무국은 올해 1월 이강덕 포항시장과 신년맞이 면담 자리에서 처음 특별회원 가입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5월 가입신청서 제출 후 NEAR의 소재지이자 동북아 지방협력에 적극 공헌하고 있는 점과 동북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등을 제안하며 특별회원 가입을 적극 추진했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앞으로 회원정부간 긴밀히 협력해 지속가능한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이익과 상생의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포항시,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특별회원 가입... 글로벌 위상 강화

NEAR 창설 후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특별회원으로 가입
동북아 광역지방정부 간 교류로 마이스산업 등 시너지 효과 낼 것으로 기대

입력 2024-09-25 19:03:11, 수정 2024-09-25 19:19:00

경북 포항시는 25일 동북아 6개국 광역 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4차 NEAR 고위급 실무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특별회원으로 가입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4~25일 양일간 중국 랴오닝성에서 개최됐다.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14차 NEAR 고위급 실무위원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을 비롯 왕리보 랴오닝성 부성장, 임병진 NEAR 사무총장, 키르기스스탄 추이주 지사, 몽골 옘스아이막 지사 등 6개국 39개 광역지방정부 국장급 대표 등 9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5일 열린 고위급실무위원회에서는 NEAR 특별회원 신설안, 신규회원 인준(중국 칭하이성), 준회원 인준(중앙아 키르기스스탄 추이주), 특별회원 가입(한국 포항시)안을 정식 의결했다.

이로써 포항시는 현재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NEAR에 가입한 첫 회원이 됐다.

NEAR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총 8개국 90개 동북아 광역지방정부간 다자교류기회 및 국제업무 지원 확대, 주요 국제 행사 포함 개최 추진 등 새로운 글로벌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포항시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NEAR의 첫 번째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준 사무국과 회원단체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회원정부간 긴밀히 협력해 지속가능한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이익과 상생의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5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 상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된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14차 NEAR 고위급 실무위원회'에서 포항시가 NEAR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시는 NEAR 상설 사무국 유치(2005년) 이후 교류를 이어왔으며, NEAR 사무국은 올해 1월 이강덕 포항시장과의 신년맞이 면담 자리에서 처음 특별회원 가입을 제안한 바 있다.

시는 5월 가입신청서 제출 이후 NEAR의 소재지이자 동북아 지방협력에 적극 공헌하고 있는 점과 동북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등을 제안하며 특별회원 가입을 적극 추진했다.

이번 특별회원 가입으로 동북아 지방정부와의 교류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포항시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를 중심으로 글로벌 마이스 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관련 산업 육성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POEX가 건립되면 회원도시 간 정치·외교·경제·문화·관광 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다자교류를 통한 협력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 국제행사·회의 유치와 협력 파트너 모색 등 국제기구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덕 시장은 "환동해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포항시가 이번 회원 가입으로 지방 외교 채널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해 지역 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항시,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특별회원 가입 글로벌 위상 강화

✎ 강병찬 기자 Ⓞ 승인 2024.09.25 15:20

- NEAR 창설 이후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특별회원으로 가입



▲ 5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 상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된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14차 NEAR 고위급 실무위원회'에서 포항시가 NEAR 특별회원으로 가입했다.



▲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14차 NEAR 고위급 실무위원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 동북아 광역지방정부 간 교류로 마이스산업 등 시너지 효과 낼 것으로 기대

포항시는 25일 동북아 6개국 광역 지방정부의 연합조직인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4차 NEAR 고위급 실무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특별회원으로 가입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회의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중국 랴오닝성에서 개최됐으며,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을 비롯해 왕리보 랴오닝성 부성장, 임병진 NEAR 사무총장, 키르기스스탄 추이주 지사, 몽골 옅스아이막 지사 등 6개국 39개 광역지방정부 국장급 대표 등 90여 명이 참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5일 열린 고위급실무위원회에서는 NEAR 특별회원 신설안, 신규회원 인준(중국 칭하이성), 준회원 인준(중양아 키르기스스탄 추이주), 특별회원 가입(한국 포항시)안을 정식 의결했다.

이로써 포항시는 현재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NEAR에 가입한 첫 회원이 됐으며, NEAR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총 8개국 90개 동북아 광역지방정부간 다자교류기회 및 국제업무 지원 확대, 주요 국제 행사 포항 개최 추진 등 새로운 글로벌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포항시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NEAR의 첫 번째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준 사무국과 회원단체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회원정부간 긴밀히 협력해 지속가능한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이익과 상생의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NEAR 상설 사무국 유치(2005년) 이후 교류를 이어왔으며, NEAR 사무국은 올해 1월 이강덕 포항시장과의 신년맞이 면담 자리에서 처음 특별회원 가입을 제안한 바 있다.

포항시는 5월 가입신청서 제출 이후 NEAR의 소재지이자 동북아 지방협력에 적극 공헌하고 있는 점과 동북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등을 제안하며 특별회원 가입을 적극 추진했다.

이번 특별회원 가입으로 동북아 지방정부와의 교류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포항시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를 중심으로 글로벌 MICE 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관련 산업 육성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OEX가 건립되면 회원도시 간 정치·외교·경제·문화·관광 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다자교류를 통한 협력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 국제행사·회의 유치와 협력 파트너 물색 등 국제기구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환동해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포항시가 이번 회원 가입으로 지방 외교 채널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해 지역 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병찬 기자 jameskang65@naver.com